

“침례 - 왜 8 세에?” 3 페이지

//







# 영감의 메시지

고든 비이. 힝클리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는 실로 많은 충고와 계명을 주셔서 우리들 회원이 애매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개인의 덕성, 친절, 법에의 순종, 국가에 대한 충성, 안식일의 준수, 절주, 금연, 십일조와 헌금, 가난한 자를 보살핌, 가정과 가족의 경지를 높임, 복음을 나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에 대한 지표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논쟁이나 다툼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종교를 매일의 생활에 꾸준히 반영한다고만 하면 그 어느 방법보다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를 피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를 헐뜯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밖이나 안을 막론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권능을 모독하는 것이 특권인양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로 지지한 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주님의 세계를 그대로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퓨리쳐 상 수상 역사가인 바바라 터호만의 말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바이다. 이것은 하겠고 저것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행동 규범이며 이외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1월 1일

통권 제66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 제 7 권 제 1 호 순 서 1971년 1월호

■ 권두언 : 계명을 지키라 죠셉 필딩 스미스.....	1
침례-왜 8세에? 시이. 엔. 오토센.....	3
병든 결혼의 일곱 가지 위험 신호 린드세이 아아르. 커티스.....	7
신회의 참다운 지식 리차드 오. 코원.....	12
약속을 지키는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14
바로 맞았죠 로차리드 아아르. 드레이퍼.....	15
멕시코갈 증조부의 통소 로잘리 더블류. 도스.....	16
둘에 채색하기 페기 가이젤.....	18
■ 관리 감독단 페이지 : 애국심 존 에이치. 반덴버그.....	19
자신을 알라, 친구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캐드린 피터슨.....	21
참다운 삶 엘레이나 루이스 바버.....	24
간증의 힘 마크 이. 피터슨.....	26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요한 에이. 본드라.....	27
어느 군인과 함께 드린 기도 칼라 산솜.....	29
■ 선교부장 메시지 : 1971년.....	30
■ 내외 소식.....	31
■ 진리의 말씀 :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리차드 엘. 이반스...포 4	

표지 설명 : 예수는 “삼십세쯤 되었을 때”(눅 3 : 23) 나사렛을 떠나(요단강 입구에서 서쪽으로 약 25키로) 강계곡을 따라 내려가셨다.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는 남쪽으로 약 112키로 떨어진 사해로 들어가는 강 입구에서 북쪽으로 6키로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서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다. (요 1 : 28) 유유히 흐르는 요단강의 흩탕 물 속으로 걸어 내려가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 : 16-17) 이번 호의 표지는 예수의 침례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택했다. 해리 앤더슨의 그림이다. 복사된 그림은 교회의 많은 방문자 센터에 걸려 있어 복음의 이해를 돕고 있다. 관련 기사 “침례-왜 8세에? (3페이지.)

# 계명을 지키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 관 장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

주님께서 돌아 가시기 몇 시간 전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 14 : 21-24)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진리속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맺어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의 예언처럼 “세상에 속한”사람(요 17 : 14)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가 이제 와서 마음속에 악을 받아들여 진리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회피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한 봉사의 대열에 설 것이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교성 59:5-6) 이는 현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제시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웃 모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터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 교회 회원이거나 아니거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깃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불평하며 잘못을 탓하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 형제의 훌륭한 점을 파괴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친구도 아니며 민족, 국가,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새로운 계명” 그러나 이는 다른 계명이 그렇듯이 영원토록 오래된 계명입니다. 이러한 계명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새롭고 영원한 것이요, 태초로부터 있던” 계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성 22:1)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었으나 태초로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이 새로운 계명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같은 내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영원한 진리의 원리인 그 원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주 앞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와 함께 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이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에 좇아 생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 교회 회원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 거처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 보면 이 진리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 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 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 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 들이는 자임이다.

또 나를 받아 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 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 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교성 84:33-39)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받으며 우리의 만행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롬 8:17 참조) 주님께서 말일성도에게, 그리고 침례의 물을 거쳐 주님의 율법에 좇아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를 이행했을 때 율법을 성취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을 다 행하였을 때 미결로 남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단합하여 주님의 봉사에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



# 침례 왜 8세에 ?

씨. 엔. 오토센

●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셨으며 이를 좀더 명백히 해주기 위하여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덧붙이셨다. (요 3:5, 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침례가 필요하다. 죄의 사함을 얻고, 성신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누구나가 거쳐야 할 관문인 것이다. (행 2:38, 니이 31:17 참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마 3:15) 그러나 분명한 예외 한가지가 있으니 유아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 19:14) 주님은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다.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아이들은 회개하지 못하는지라……어린 아이들에게 침례하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심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헛되다하는 자라.” (모로 8:19-20) 이같은 몰몬의 말씀과 다른 경전 구절은 어린 아이가 회개를 감당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알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에까지 성장, 발전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어린 아이가 발전하여 이런 정도에 이른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선언하신 사실과 어린 아이는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몰몬의 말이 교리상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유아의 순진한 시절에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후에 발전하여 어떤 단계에 이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친절하고 현명하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 위배되는 것이다. 침례란 인생의 개성 발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릇된 길로부터 회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유아 침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에서도 그 의식의 정당성을 경전에서나 기타 방법으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의 견해가 다양하다. 성 어거스틴도 침례받지 않은 유아라도 모두 지옥의 영원한 화염에 들어간다고 말했으나 후에는 변명조로 이렇게 썼다. “본인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는지 무척 당황하고 있다.” 리버푸울의 잉글랜드 대학교의 빈센트 월킨 로마 카톨릭 교목은 침례받지 않은 어린이도 하늘에 들어 가기는 하나 그리스도가 오실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는 들어 가지 못한다는 한층 누그러진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때에는 죽음과 함께 원죄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때에 유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유는 그들의 죄로는 원죄 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현대 계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분별력,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며 침례 의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주님은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할 수 없느니라.” (교성 20:71)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성 68:27) 또한 부모는 자녀가 회개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우며, 그러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침례 의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필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다. (교성 68:25)

그러면 8세를 어린 아이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으로 정한 것이 전혀 임의적인 처사인가? 그 시기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회개와 침례를 요구하여야 하는가? 사실에 있어서 8세를 책임 연령으로 정한 결정을 뒷바침하여 줄 이론이나 체험이나 근거가 있는가? 어린 아이가 그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는가? 회개할 능력이 있으며 침례와 성신의 안수례를 받은 다음에 찾아오는 책임과 새로운 삶, 기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일정한 연구 및 활동 분야에 있어서 8세를 다같이 책임 연령으로 간주하며 분별력, 판단력, 자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험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을 알기에 발전 과정의 시초라고 본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흥미있다. 유아심리 분야에서 행하여진 조사 연구에 따르면 8세 어린이가 갖춘 성인 특성은 위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위의 결론의 정당성을 뒷바침하는 것이다.

8세의 어린 아이는 어떨까?  
에일 대학과 의과 대학 유아 발달

과의 아놀드 게셀 박사와 프란세스 엘. 일그 박사는 수년간에 걸쳐 어린 아이의 발전, 성장 및 사고 과정에 대하여 연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8세는 어른의 표준으로 볼 때에도 성인 이상이다. 지배적인 경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감정한다.

그는 부모나 교사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한다. 학교 친구와 함께 자신의 습관을 길러가며 상호간의 비판과 책임의 지명 등으로 활동을 처리해 나간다.

창피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며 틀린 것에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며 행동은 도덕적인 표준이나 원칙을 고집하려 한다. 그는 양보를 배워 친구가 세운 금지 조항이나 제약을 받아들인다.

이미 어린 아이는 아니다. 5, 6, 7세 때에는 넓은 성인 세계의 새로운 면과 접촉하여 적은 단면 혹은 단편만을 보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8세가 되면 결론을 찾으며, 구별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 관련된 것으로 행동한다. 자신을 못 사람 중의 일인으로,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하며 다른 사람이 정하여 준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 든다.

8세에는 자신의 사고를 관리하며 결정하며 사물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할 수 있다. 좋은 편에 서기를 원하며 선과 악의 반대되는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꺼려하며 결과를 달게 받기도 한다.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며 종교와 성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는 강한 이니시아티브를 보여 자기의 주위 환경에 적응하려 한다.<sup>2</sup>

벤자민 에스. 블룸 박사는 “인간 개성의 안정과 변화”란 저서에서 실제로 어린 아이는 4세 이전에 자신의 지능의 반을 얻으며 8세까지는 이보다 30퍼센트나 많은 전체의 80퍼센트 이상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sup>3</sup>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불구자를 위한 초등교육 학교 책임자인 윌리엄 존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인간의 생애 중에서 추상적인 학문이나 수학 연구의 적령기는 약 8세부터 11세까지이다.”<sup>4</sup>

1938년에 미시간 대법원에 고소 사건이 있었다. 7세 정도의 어린이는 책임감과 자기에게 닥치는 위험





을 알아 자동차 교통과 관련하여 피해를 모면하는데 필요한 주의력, 분별력,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판사의 견해도 어린이의 보호, 교육, 심리 분야를 연구한 학자의 결론에 일치하였다.

“7세 미만의 어린 아이와 이 연령을 지난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사례를 정당화 할 실제 사실, 학문 또는 연구 내용을 들 수 있는가? 이 연령에 속한 어린이의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수세기 전에 구체화한 결론이 유아 보호, 교육 및 심리의 특수 분야를 연구한 오늘날의 조사자나 과학자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가 유출한 결론 중 팔목할만한 점은 7세가 어린 아이의 지능 발전에 있어서 전환선이 된다는 것이다. 본 문제를 다룬 저술에서는 이 연령을 사고와 이론의 시작이며 생각, 교환의 시초며 의로움의 개념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분야의 권위자들은 이 나이를 자기 중심의 이야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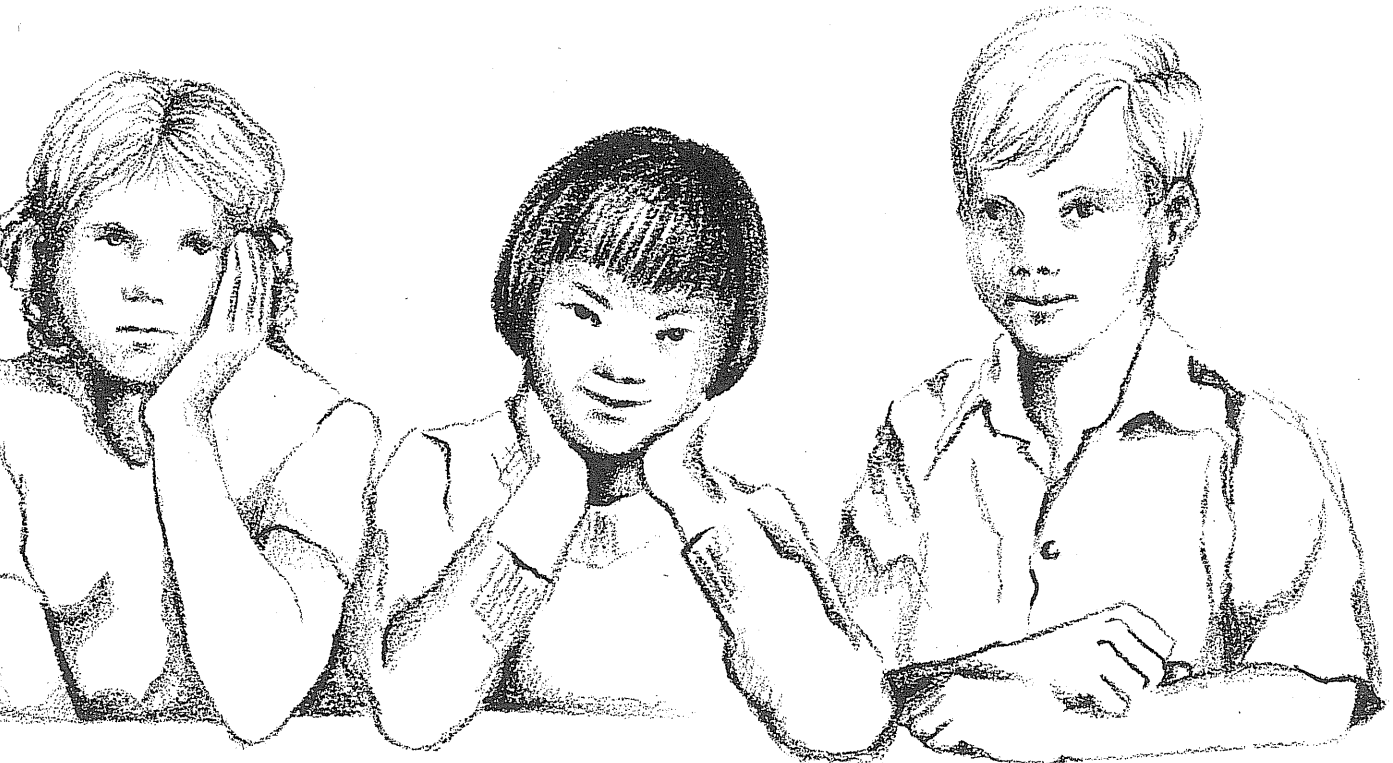
생각으로부터 구술상의 이해, 사회적 사고 및 협조의 시기로 바뀌는 때라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7세는 한 인간이 상상력과 꿈의 경지에서 실제와 사실의 세계로 변해가는 시초이다.”<sup>5</sup>

미합중국의 연방 및 주 재판의 경우에서는 재판관의 견해나 판사의 판결을 종합하여 볼 때 근본적으로는 과학자나 소아 심리학자의 결론과 같이 7세와 8세에 성인의 특성이 생긴다는 점이 나타났다.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과연 해당 어린이가 충분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과실 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법원이 우려하는 바를 간단히 적으면 어린 아이의 발전 및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느 연령 또는 시기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로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알기에 충분한 판단력과 경험을 쌓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부주의한 행위를 법

의 제제를 받는 행동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해에 그치는 것인가?

성인도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환경하에서 반응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거나 법률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부주의한 것이거나 부주의한 것에 유사한 것이다.<sup>6</sup> 그러나 어린이나 유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보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에서는 어린 시기에 처한 사람에게 이같은 종류의 외적인 법률 적용을 꺼리고 있다. 판단력, 경험, 이해력, 그른 행동과 옳은 행동을 구별하는 문제는 유년 시절에는 너무도 판이하여 성인 배심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하고 신중한” 어린이가 주어진 환경하에서 몇살 때 어떤 행동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sup>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두가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위 일리노이주 법은 7세까지의 어린 아이는 단정적인 행위, 무능력의 가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가 이 법을 따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매사추세츠법으로 알려진 것인데 7세까지의 어린 아이의 반증적인 행위 무능력의 가정을 주장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두법 모두가 7세를 포함한 연령까지의 어린 아이의 행위, 무능력의 가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을 단정적으로 하는데 반해 소수의 주에서는 가정을 반증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사실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 바이지만 어느 주를 막론하고 7세로부터 8세까지를 구별선으로 판단과 분별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어린 연령과 판단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따라서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 법률이 어린 아이에게 적용될 때 일리노이주 또는 매사추세츠주 법 중의 하나를 옹호하거나 정당화시킬 생각은 없다. 다만 어느 주의 법을 따르든지 약 7세부터 8세까지를 어린 아이의 “정신 발전에 있어서의 구획선”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이 “책임의 결정적인 연령”은 유아 심리, 범죄 법률, 판례, 교육면에 있어서도 같다는 점이 밝혀졌다. 모든 법원에서는 5세, 6세를 포함한 유아기의 어린 아이는 과실 또는 조성 과실로 다룰 만큼의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과실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어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관계 당국에서 7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 조성 과실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당 문제에 관하여 공포한 법률을 따른다.”<sup>9</sup>

어떤 종류의 법률 토론이든지 그것이 완전해지려면 꼭 인용해야 하는 유명한 영국 법률학자가 있다. 윌리엄 블랙스톤(1765—1769)은 유명한 비평을 썼는데, 그는 이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실에 있어서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는 중죄를 지을 수 없고 따라서 중한 범죄 행동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8세가 되면 중죄도 범할 수가 있다.”<sup>10</sup> 물론 이는 범죄 책임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역시 어린 아이의 능력과 책임 연령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블랙스톤경은 곡간 들을 태운 죄로 기소되어 17세기 법에 따라 교수형을 당한 판례를 예로 들어 그 당시의 참혹한 법제에서도 7세는 무죄 연령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8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의 어린 아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필연적인 견해차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흥미 있게도 대부분의 경우 일맥상통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인간의 견해차로 생기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여도 대다수의 재판 판결을 통해 볼 때 유아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다음에 열거하는 전체적인 결론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

1) 7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판단과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실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

2) 7세가 되어도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무능력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법률

을 반증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어린 아이의 개별적인 능력, 판단, 훈련 배경과 분별력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법원이나 판사에게 일임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데도 많다.

3) 8세가 된 후로는 책임 연령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판단력, 능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으로 인정, 처리되어야 한다.

수세기에 걸친 학자, 유아 심리학자, 불법, 범죄 행위를 다룬 판사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정상적인 어린 아이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8세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정도로 성숙한 연령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어린 아이는 몇 살에 칩레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일성도가 생각하는 바를 잘 설명하여 주는데 불과하다. 하나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주신 지시에서 모든 아이는 8세가 되었을 때 칩레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셨다. 이외의 모든 증거는 이차적인 것이다. ○

#### 각 주

- ① “어린 아이를 내게 오게 하라” 타임 1961년 11월 10일 52페이지.
- ② 아놀드 게셀, 프란세스 엘. 일크 “5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 160—86페이지.
- ③ 벤자민 에스. 블룸 “인간 개성의 안정 및 변화” 68페이지.
- ④ 쏘트레이크 트리뷴 1966년 12월 15일 17면.
- ⑤ 타임리 매 위드 832페이지.
- ⑥ 유타 판사 유의 양식 15부 1항.
- ⑦ 타임리 매 위드 “스프라” 833—36페이지.
- ⑧ 174 A.L.R.1103; 77 A.L.R. 2nd 913.
- ⑨ 베이커 대 알트(미시간 1965)
- ⑩ 블랙스톤 주해서, 제 4권 23면.



# 병든 결혼의 일곱가지 위험 신호

린드세이 아아르. 커티스  
의학박사

● 의사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과 면접하는 동안 나는 고가 도로의 번쩍이는 노란 등처럼 경고의 깃발을 계속 흔드는 병든 결혼의 위험 신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현명하여 이러한 위험 신호를 재빨리 알아 차린 사람은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자신을 오해와 이혼의 비극으로부터 구해줄 안전한 길을 택하여야 한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들 위험 신호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둘 때 이러한 신호는 결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 예사로운 예의를 망각함

토마스 이. 벡케이(\*) 장로는 오래 전 내가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선교부장을 지내신 분이다. 그 후 그분은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나를 사무실로 찾아 주셨다. 그때에 그분의 건강은 말이 아니었으나 영

\* 전십이사도 보초, 1875—1958

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일어서려면 무진 애를 써야했고 그대로 있거나 조금 움직이려해도 한쪽에는 벡케이 자매가 거들어야 했다.

나는 그분이 천천히 병원 앞 층계를 내려가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차로 다가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벡케이 자매의 도움은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우리들의 도움은 한사코 뿌리쳤다.

그때는 건강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었던지라 나는 벡케이 자매가 그분을 도와 뒷 자리로 모시고 갈 줄 알았다. 그렇지만 벡케이 가족의 전형적인 기사도 정신이 몸이 불편하다고 그대로 잠자는 것은 아니었다. 두사람이 운전석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벡케이 장로는 즐거운 태도로 벡케이 자매를 위하여 문을 열어 주었고 탄 다음에는 닫아 주었다.

그제야 비로소 벡케이 장로는 불안한 걸음으로 한 손으로는 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차를 돌아 그녀 옆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간단한 것들이다. 차의 문을 열어 준다. 코트를 입고 벗을 때 도와

준다. 먼저 가게 한다. 길을 양보한다. 먼저 앉게 하며 도와준다. 모두가 조그만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사랑과 이해와 부드러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감사해요. 원하시는지요. 미안하지만,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등의 짧은 말을 적당한 시간에 사용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고가 도로에서 적은 시골길로 빠지는 길 입구에 이런 표시가 있다. “바퀴 자국을 따라 가십시오. 앞으로 14키로가 이런 길입니다.” 좋은 습관을 현명하게 선택하라. 그러면 평생을 그 습관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벡케이 부부가 그들의 자녀에게 시작하도록 한 그 바퀴 자국(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은 예의와 기사도 정신으로서 평생을 두고 작용한 훌륭한 습관이었을 것이다.

##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사용함

저녁 여섯시 웨인이 현관문을 마악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싸움하는 소릴 들었다. 조안은 웨인이 피로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는 시간에 맞추어 저녁 준비를 한참하고 있었다.

4살먹은 부르스가 밀크를 옆질러 식탁보가 흠뻑 젖었고 테리는 어머니가 담아준 저녁 몹을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하여간에 저녁은 끝났다.

웨인가의 “나”는 잠시후에 텔레



비전으로 중계될 농구 경기와 보울링팀에서 핀치 히터로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생각해 냈다.

웨인가의 “우리”는 애들을 씻겨 잠자리에 보내야 하며 조안은 오늘 하루를 자기 보다도 더 고되게 보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었다. 아마도 조안은 그보다 더 피로할 것이다. 따라서 설겅이나 아이들을 씻겨 잠자리를 보여주는 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무척 감사할 것이다.

웨인은 또한 둘이 함께 나가서 기분전환이라도 하자고 말할 때 조안의 얼굴에 나타날 기쁜 표정을 볼 수도 있었다.

상대방이 이런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맙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요. 오늘은 친구분들하고 보내시면 좋겠어요.”

같은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베풀어 주는 조그만 희생이 결혼생활을 해칠리 없고 특히 상대방이 기대하지도 않은 것이 자발적으로 보여질 때의 효력은 참으



로 크다. 나의 부모의 결혼 초기를 소개한다면 처음에는 주급 10불로 십일조, 집세, 식비,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저축 등으로 쪼들렸 으면서도 그들은 보다 풍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는 한 이십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 집에 오시며 굳은 차비로 자기에



게 오랜지를 사다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해주었다. 사실 아버지의 이 하찮은 선물을 사오는 희생은 어머니가 보여주는 감사와 기쁨으로 더 큰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 견디기 힘든 침묵

미모의 29세로 세 아이의 어머니인 제니는 매일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래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아마 물건을 사들이는 일인가봐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죠? 말하자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맥에서는 남편과 남편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나요?”

“글쎄요, 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선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물어본 적은 있었나요?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남편이 자기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관심을 보였던가요? 아니면 아이들 문제나 자신의 관심사로 남편의 말문을 막지는 않았던가요?”

“한참 동안을 묵묵히 생각하던 제니는 남편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무관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훌륭한 대화의 시작은 진지한 관심이다. 사람이란 관심있게 듣는 사람이 없이는 이야기의 흥미를 느끼지 않는 법이다.

짧고 진지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열심히 들을 준비를 갖춘다. 만일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남편(또는 아내)이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도 많은데 놀랄 것이다.

자기 안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화를 소홀히 한 사람이다. 말은 값싼 것이나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아내에게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침묵은 금이 될 수 있으나 서로가 의사 소통을 하여야 할 때에는 오해만을 더해줄 뿐이다. 말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다.

### 칭찬에 인색함

셀리아는 세심하고 능력도 있으며 게다가 웃도 어울리게 입는 여자이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대학엘 다니고 있는 요즈음은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

셀리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저가 일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는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는 매일 제 책상을 지날 때마다 하고 있는 일이나 머리, 옷을 칭찬해 줍니다. 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대해줘요. 제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그가 주위에 있으면서부터 100퍼센트 탈바꿈한 것입니다.”

몇 마디 더 질문하여 보니 그녀는 남편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전 남편을 사랑해요. 그러나 칭찬은 한번도 못들었어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잘못된 것만 꼬집기가 일쑤죠.”

“언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나요? 정말 부인이 잘못할 때던가요?” 나는 물었다.



“언제나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잘할 땐 아무 말도 안합니다. 머리 모양이나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심지어는 향수를 바꾸어도 통 관심이 없어요. 아마 저는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 마땅한 사람인가봐요.”

후에 나는 켈리아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아내가 일할 때 부단히 칭찬하여 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걱정

을 하고 있었다.

“켈리아는 제가 그를 위해주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모두 사다 주죠. 저희는 절대로 궁색하지 않아요. 차도 하나 따로 사줬죠. 이에서 뭘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여자가?” 그는 말했다.

“켈리아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심을 보일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녀에 관한 한 맥에서는 부인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부인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성은 맥에서 결혼하시기 전에 아끼지 않았던 칭찬의 말을 결혼 생활을 통하여 계속 사용하여 더욱 의미 깊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추켜세우는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가 말하는 것이 아침은 아니었다. 모두가 진실한 것이었으나 전에는 이미 넉넉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켈리아의 사기는 높아졌고 따라서 그녀에 대한 남편의 점수도 높아만 갔다. 이 결혼은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게 되었다.

태만으로 조각나는 결혼의 예는 너무도 많다.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다같이 한달에 일곱번을 칭찬하여 주어야만 한다.

### 함께 기도하지 않음

넬리와 루가 서로 칼부림을 했던 얼굴은 피로 덮혔을 것이다. “모두가 끝난 거야. 찢어진 조각을 붙이려 한다면 별 소용이 없어요.”

넬리가 말했다.

“하여간에 내 말쯤 들어보시오. 어쩌면 이 경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도 자기의 것은 없다는 식으로 고귀한 사랑을 쏟던 신부를 잘 기억하고



있오. 또한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신부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던 신랑을 기억하오. 아마 두 사람이 다 그때에는 행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요.”

“행복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걸요.” 넬리가 말했다.

“중소. 두 사람이 당시에는 행복했었오. 그리고 두 사람이 신전 의식을 마치고 나올 때는 아주 영적이어서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오. 뭐 다른 사람이 준 충고도 받아 들이고 기도도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아주 오래 전이긴 하지만.” 넬리가 말했다.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주님의 도움을 청했죠?”

이번에는 루가 말할 차례였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것두 아주 자주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무슨 말썽을 하시려구 그러는지 다

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의 차이를 없애 달라는 간구를 드려 오늘 의 이 처지를 당하지 않게 미리 손을 쓰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내가 알고저 하는 것은 언제부터, 왜 함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는 거요.”

“이야기를 하자면 길쭉.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기도를 집어치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신권 소유자로서 태만하여 여러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 분이 다 솔직히 대답해 주기를 바라오. 만일에 두 분이 결혼 초에 가졌던 행복, 사랑, 신뢰, 다정함을 그대로 가질 수만 있다면 갖기를 원하는가요?”

벨리가 나섰다. “많은 가정을 내포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원하기는 원하죠.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어요. 특히 서로 할 말을 다한 후 인걸요.”

“지금까지 두 분이 실제로는 바라지 않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까? 뭐 누구나 그런 경우를 당하게 마련이니까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 흔적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앞으로는 생각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원하죠.” 루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서로에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심한 부탁인가요?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두 분이 결혼의 성약과 맹약에 따를 기회를 간구하고 언제나 함께 기도로 그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한다면 주님이야말로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구를 받을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도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살아있는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 서로의 필요(요구가 아님)를 알아 충족시켜 주지 못함

그녀의 아름다운 뺨에는 큰 눈물방울이 흘러 내렸다. “저는 좋은 집을 못가졌다거나 남이 다 가진 물건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불평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남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는 새벽부터 한 밤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가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존심입니다. 신념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는데, 여하간에 저는 모두를 상실하고 말았읍니다.”

이제 결혼 3년 밖에 되지 않은 24살의 루트는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이 훌륭한

한 아내며 어머니로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저는 남편이 가끔이라도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랐어요.”

반대의 경우이지만 어느 날 제랄드는 나를 사무실로 찾아와 처인 빅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선생님 제가 사람을 잡아 먹는 귀신은 아닙니다. 저는 제 처가 저만을 생각해야 된다고는 믿지 않아요. 본래 제 집도 다정한 가정에 들었는데 저는 저의 이런 정도가 한 남성과 여성을 결속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키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저는 그녀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세의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나 형제들과 함께 사냥을 다니고는 했습니다. 며칠 안되는 시간이지만 가정을 사랑으로 결속시켜 줍니다. 저는 나머지 시간은 제 처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사냥을 한다고 지나치게 몰아 세우기 때문에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테레사는 27세의 금발 미인이다. “선생님, 여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머리를 만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집 문제를 제외하고 빚이라고는 없어요. 저는 월급 때마다 저축

을 합니다. 남편은 배에, 총에, 낚시 도구를 갖고 있어요. 저는 머리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생각인가요? 남편은 손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혼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습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침몰되고 있는 배에 조개가 붙는 식으로 다른 불평의 씨가 더해질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아인슈타인의 부인은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대답했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는 바가 애정, 감사, 신뢰, 관심, 저녁 요리, 매주일 머리를 만지는 것 등 무엇이거나 간에 훌륭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은 기민하고 눈치 빠른 상대방이 베풀어 주는 결과로 사는 것이다. (마 4:4 참조)

### 사랑의 표시를 못함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왜 아직까지 부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느냐고 재판관은 물었다. 이에 그는 이야기를 했노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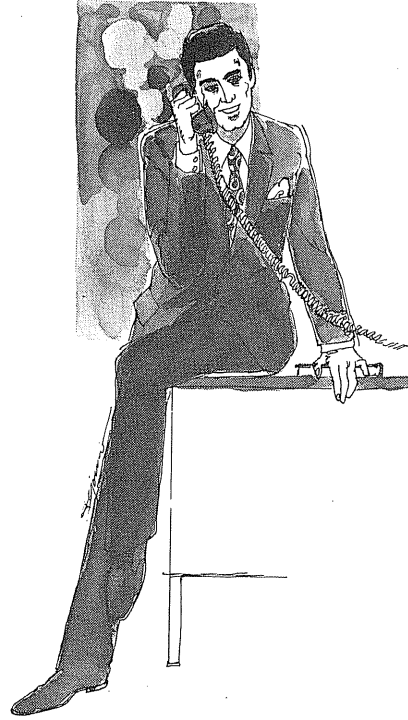
“언제였오?” 재판관은 물었다.

“결혼했을 때였죠.” 아마도 그 이후로는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처럼 많이 사용하는 말도 없다. 그러나 여성(남성)은 이 말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강하고 과

묵한 타입이라도 이 간단한 말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다소 못생기고 패기가 적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다.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을 왜 못하죠?” 우리는 위의 말에 ‘언제나 계속



속해야 된다’는 말을 덧붙여야만 한다.

남성의 가장 좋은 투자는 낮에 전화로 자기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동전이다. 한번 시험해 보고 결과를 보자. 여러분이 아내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같이 있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이 어떤가 살펴보자.

우리들 남성은 다함께 아내에게 “여왕상”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이 자신의 부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자.

“여왕”은

최우수 행동가: 실망했을 때에도 쾌활한 행동을 보임. ‘발렌타인 데이’에 받은 거라고는 선물 아닌 입

맞춤 뿐이었다. 나는 깜빡 잊고 있었다.

최우수 작가: 학교, 선교사업, 군무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아이에게 편지를 보냄.

최우수 연출가: 세상에서 가장 혼잡한 네거리, 우리 가정의 교통을 성공적으로 해결함.

최우수 생산자: 바쁜 남편의 도움을 최소로 받으면서도 수선을 피우지 않으며 자녀를 위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음.

최우수 의상 디자이너: 음악회, 졸업 무도회, 특별한 사람을 배울 때 입을 옷을 디자인하여 만듦.

최우수 조연 여우: 내가 교회 직책 및 직장 일을 할 때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협조해 줌.

오늘날 특히 오해되고 있는 개념 중 가장 큰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후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사랑의 시초에는 서로를 보는 매력 때문에 위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무작정 결혼하여 함께 사랑의 생활을 구축하려 한다. 그러나 참다운, 영원한, 의미 깊은 사랑은 우리가 그대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여야 한다.

사랑이란 결혼식에서 맺는 성약과 약속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두고 사랑, 온화, 비이기, 관심에 가득찬 행동으로써 벽돌을 한장씩 쌓는 새로운 건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병든 결혼의 신호와 증상을 즉각 알아차려 이를 고치며 최상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여성에게도 해당되지만) 부인이 자기를 왕처럼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부인을 여왕처럼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

# 신회의 참다운 지식

리차드 오. 코원

● 하나님의 개성과 품성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종교의 기초가 된다.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 20 : 3)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히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의 첫째 조항은 신회를 믿는 것이며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복음의 첫째 원리라고 가르쳤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신약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가르치고 있다. 교회내에 성스러운 권능과 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하여 배도의 어두움이 이 땅을 덮었을 때 이러한 진리는 없어지게 되었다. 이 지식이 다시 인간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어주신 시간부터이다.

신약은 신회의 세 구성원이 서로 다른 분이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가 침례받았을 때를 예로 들어보면 :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 : 21—22, 마 3 : 13—17, 막 1 : 10—11참조)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둘기 형상은 성신의 증거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제정된 것이며, 악마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오지 못한다. 성신은 인격체이다. ...성신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행위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에게 주어졌다. ...”

오늘날의 침례는 아버지, 아들, 성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신회에 관하여 1843년 주님이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 : 22)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 : 27, 히 1 : 1—3 참조)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살과 뼈로 된 몸을 만져 보게 하시어 자신이 영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 : 36—39)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리스도의 변형의 시기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킬 시기에, 요한은 계시의 시작에 이를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대한 빛과 광채라는 말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 : 5)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던 것이다.

계시가 이 지상의 교회를 인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진리는 없어졌다. 이방 철학의 영향에 힘입어 기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요셉 필딩 스미스 편저, 메저넷 출판사. 윌트레이크시 1967. 276 페이지



독교 사상가들은 어떻게 하면 일신교 신자가 될 수 있으며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 하였으나 신회의 세 구성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여러 가지 색다른 설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양자 주의자는 그리스도는 단지 육신의 인간으로서 것처럼 성스러운 완전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아 신의 위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삼위 양식론자는 하나님을 한 사람의 배우와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아들, 성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원후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주춧돌을 놓았다. 니케아 신조의 일부를 인용하면 :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본질임을 믿는다<sup>2</sup>.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이와 유사한 교리를 내세웠다.

우리는 인간을 저축하지도, 물질을 나누지도 않으시는 신회의 한 하나님, 조화된 신회를 경배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사람, 아들의 다른 한 사람, 성신의 다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성신의 신회는 모두가 한 사람이다. ……<sup>3</sup>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성과 신성을 놓고 혼란을 거듭한 끝에 기원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출생 전과 출생 후의 두 가지 품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개인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서서히 없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온 우주를 채우는 힘이 되고 말았다. 영국 정교회 신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영원하시며, 육체와 지체 또는 감정도 없으신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 있을 뿐이다."<sup>4</sup>

그 다음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여 그를 재판관으로 두려워하는 교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개성에 대한 투명치 못한 이해와 함께 결드린 이 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성도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중계자로 행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종교 개혁자로 계시는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되살아나게 한 사람도 있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다운고도 완전한 이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종교상의 혼란은 요셉 스미스가 성경을 읽고 '어느 교회가 옳은가?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요소가 되기도 남았다.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 위하여 숲으로 들어 갔을 때에도 그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으나 그의 신앙에 찬 간단한 기도는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었으며 신회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회복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의 첫 번 시현은 역사가 증명하는 문제이다. 그는 이에서 말하기를 :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 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에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16, 17)

이 짧은 경험을 통하여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몇 가지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1. 신회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세 분이다.
2.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이 창조된 모양의 실제 육체를 가졌다.
3. 그들의 영광과 찬란함은 표현키 어려웠으나 요셉은 이를 보고 자기가 본 것 즉 "신회의 제3 구성원인 성신이 (성스러운 때에는 이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영혼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본체로 영화롭게 된 두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sup>5</sup>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서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121 : 26)

4.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하에 움직인다.
5. 인간은 다른 중매자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2. 비이. 에이치. 로버츠 점도역사의 개요. 제 4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24년 189페이지

3. 같은책 190페이지

4. 같은책 191페이지

5.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물론 교리, 북크레프트 출판사 285-287페이지

# 약속을 지킴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본부 주일학교 감독



● 어느 따뜻한 여름날 어린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아버지 데이비드 맥케이를 도와 들에서 꼴을 거두어 들고 있었다. 말을 말뚝에 잡아 매고 아버지가 마차에 실어주는 꼴을 옮기는 작업이었다. 그들은 들 아래쪽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순서대로 말끔히 치워갔다.

그때만 해도 십일조를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로 냈다. 그러므로 아홉번을 실어나른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다음번이 십일조 건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지금까지 일한 아랫 부분은 다소 축축한 곳으로 거기서 자란 건초는 저 꼭대기에서 자라는 좋은 목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얘야, 십일조를 위한 꼴은 저 위 끝에 있는 걸로 하자.” 아버지는 맥케이에게 말했다. “뭐 여기 있는 것도 좋은데요.” 아들은 이미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십일조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다. “아니다. 주님의 몫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열번까지는 들에서 제일 좋은 풀로 꼴라 실어 날랐다.

이 일은 십일조를 어떻게 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보기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 이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심리를 더 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십일조가 선물이 아니며 주님에게 이미 약속한 어떤 회비를 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데이비드는 그날 약속은 반드시 풍성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이는 실제로의 달성 이상이어야 한다.

자신의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태도는 맥케이 대관장의 평생을 인도한 원리중의 하나였다. “의무에의 헌신”이 설교의 주제가 된 경우가 많다. 자신에 대한 책임은 하늘 아버지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식으로 지켰다. 그분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로를 개의치 않았고 자신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즐거움이나 관심은 뒤로 미루었다. 그분은 부족한 문자로 이루어진 기록의 문자를 고집하여 원래의 계약 정신을 회피하려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였다.

그분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약속이었으며 다른 사람도 같은 감정을 가져주기를 바라셨다. 구라과 선교부를 방문하신 수주일 동안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8시 30분에 약속을 하면 그것이 8시 31분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게 되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약속을 하는 성인에게는 하치않게 보일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맺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어느 날 주일학교 공과반 교사에게 미리 정한 시간에 자기 사무실에서 그반 회원과 악수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이 나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반원은 몹시 실망하였다. 그러나 퇴원한 바로 다음 주일 날 주일학교에 참석하여 약속을 지켜 주일학교 감독을 놀라게 만들었다.

런던에서는 조그만 소녀가 균중을 해치고 나와 싸인을 해주시겠느냐고 여쭙어 보았다. 대관장은 머리를 끄덕여 승락하였으나 그와 악수를 하려고 밀치는 어른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맥케이 대관장은 그 소녀를 찾아야만 한다고 하셨다. 몇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은 찾게 되었다. 맥케이 대관장은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집에 함께 모여 저녁을 들며 대관장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었다. 루린도 역시 손님으로 초대받았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이미 온 자매와 약속을 하였고, 그녀는 아직도 루린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저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관장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루린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는 그녀와 약속을 한거야. 그런데 여기서 무얼하고 있지?” 그녀는 자기가 늦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더구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널 약속을 했어. 약속은 지켜야지.”

루린은 그날 맛있는 데저트를 놓치고 말았다. ○



## 바로 맞았죠 로자린드 아아르. 드레이퍼

● 옛날에 크지 않은 아주 예쁜 여자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니야, 아침을 먹고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으렴. 오늘은 동물원에 가는 날이란다.”

제니는 큼직한 오렌지 점이 박힌 노랑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큰 손을 꼭 붙잡고는 버스를 타러 큰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긴 노랑색 버스가 올 때까지 작은 노랑색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 \* \*

동물원에서 제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 기린 좀 봐요. 목이 길구, 어쩌면 저렇게 가늘지?”

“높은 나무에서 잎을 따먹으려면 목이 길어야 되거든.” 제니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제니는 물가에 서있는 하마를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목줄 봐. 길지도 않고, 가늘지도 않은데. 목이 짧구 굵구나. 짧은 꼬리도 있는데!”

“그렇단다. 저 큰 머리를 떠받들고 있으려면 짧고 굵은 목이 있어야지.”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원숭이 울에 와서 제니는 손뼉을 치며 원숭이를 가

리켰습니다. “어머니 저 우스운 원숭이 좀 보세요. 꼬리가 무척 긴데요! 그 긴 꼬리로 그네를 타지 않아요!”

뱀을 본 제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리가 길지 않네요, 짧지도 않구요.”

제니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꼬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말도 맞는다. 전체가 꼬리처럼 보이지. 뱀에게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땅을 기지 않으면 안되거든.”

그날 밤 제니는 큰 거북 무늬의 분홍색 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은 길지도 가늘지도 않구나. 나무 잎을 먹지 않아도 되고.”

“내 목은 짧지도 굵지도 않구나 큰 머리를 떠받들지 않아도 되고.”

“그네를 탈 긴 꼬리도 필요 없구. 난 그네에 앉아서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

“난 긴 꼬리처럼 보이지도 않아. 팔과 다리가 있어서 땅을 기지두 않구 두 발로 걸어다니지.

“난 큰 아이가 아니지. 작은 아이지. 작은 제니야. 그렇지만 나는 얼마나 기쁘지 몰라!” ○

# 백도갈 증조부의 통소

로잘리 더블류. 도스

● 안구스 맥그레고는 자신의 연주곡을 마쳤다. 아름다운 음과 조화로 이제 경연 대회는 끝난 것이었다.

제미 백도갈에게도 역시 대회는 끝난 것이었다. 최선을 다하여 경쟁에 임하였던 그였다. 그러나 안구스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스코트랜드 고원 지대에서는 누구 보다는 월등한 안구스였다.

안구스를 최우수 연주가로 선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제미도 이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구스는 클래스고우에 가서 마지막 결선에 참가할 영예를 얻은 것이다. 만일 거기서 승리한다면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이 고원지대에서 청소년으로서는 제일 뛰어난 연주가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안구스를 둘러싼 채로 축하하고 있었다. 제미는 자신이 훌륭한 패자가 되어 역시 안구스를 축하해야 한다고 믿었다. 안구스와는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구스에게 가서 말을 걸기까지는 대단한 결심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구스, 클래스고우에서의 행운을 빈다. 너넉히 우승할거야.”

“감사해, 제미. 그런데 잘 모르겠어.” 안구스가 말했다.

“무슨 뜻이야?” 제미는 놀라 물었다.

“통소가 낡아서 소리가 제대로 날지 모르겠거든.” 안구스는 대답했다. 그는 통소를 들어 제미에게 보여줬다.

“가죽이 낡아 해졌어. 언제 터질지 위태롭단 말이야.”





“그럼 결선에 나가기 전에 새질 하나 사지 그래?”  
제미가 물었다.

안구스는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가로 저었다. “좋은 통소는 값이 비싸.” 그러더니 그의 얼굴은 곧 환하게 변했다.

“그렇지만 우승패와 함께 현금 부상도 있으니까, 만일 거기서 일등만 하면 새질 하나 살 수 있을거야.”

제미는 자기 통소를 내려다 보았다. 맥도갈 증조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은 장식과 맥도갈 가문을 나타내는 기가 달린 아름다운 악기였다. 맥도갈가는 언제나 이 지역에서 제일의 연주가였다. 이 오랜 통소는 클래식고우에서의 결선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행진곡을 불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 제미는 자기 가문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맥그레고에게 졌던 것이다. 맥그레고가 친구만 아니었더라도 조금은 나왔을 것이다.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제미가 이렇게 불쾌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안구스의 어머니 맥그레고 아주머니의 말이 들렸다. “자 제미야, 우리 집에 가서 더운 빵 좀 들지 않겠니?”

제미는 빠른 동작으로 돌아섰다. 그 축하 모임에 참석하다니!

집을 향해 뛰려하였을 때 그는 무엇이 자기 다리를 비벼대는 것을 느꼈다. 안구스네 집 개 래디였다. 아주 크고 잘 생겼고 게다가 색도 예뻐다. 제미는 안구스야 말로 다른 아이보다도 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시험에서 일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원 지대에서는 제일 좋은 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래디는 양을 지키는 개였다. 양지키는 능력을 인정받아 상도 여러번 탔다.

“그래 래디는 좋은 개지, 래디야?” 제미는 허리를 굽혀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다. 래디와는 오랜 친구였다고 하겠다. 제미, 안구스, 래디 등 셋은 함께 양떼를 언덕위로 몰고가고는 했다.

제미는 마지막으로 래디를 쓰다듬어 주고는 집 현관 문을 닫고 나자 눈물이 뺨을 흘러 내렸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의 통소를 안방 탁자위 성스러운 곳에 가만히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두 주먹을 눈에 대고는 눈물을 멈추게 하려고 애썼다. 올해는 맥도갈의 통소 소리가 클래식고우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노력을 안한 때문은 아니었다. 안구스가 자기 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제미의 부모는 금년 대회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제미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그보다 잘할 수는 없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이 비탄에 빠져있는 제미에게 하등의 위안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문을叩는 소리가 났다. 래디일 것이다. 안구스는 종종 래디를 보내 제미를 오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안구스가 자기를 부르러 보내지 말아주기를 바랐다.

제미는 문을 열었다. “그래 래디야, 가마. 맥도갈이 슬픈 패자는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맥그레고의 오두막집을 향해 반쯤 갔을 때 안구스가 그들을 맞아 주었다. “내가 너를 부르러 래디를 보냈지, 큰 부탁이 한가지 있어서 말이야.”

“무슨 부탁인데?” 제미가 물었다. 안구스가 무엇을 더 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안구스는 물었다. “내가 클래식고우에 가 있는 동안 래디를 좀 데리구 있어 주겠니?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기는 할테지만 양을 몰고 산까지 갖다가 오실 시간은 없으시거든. 래디는 너와 함께 있으면 좋아할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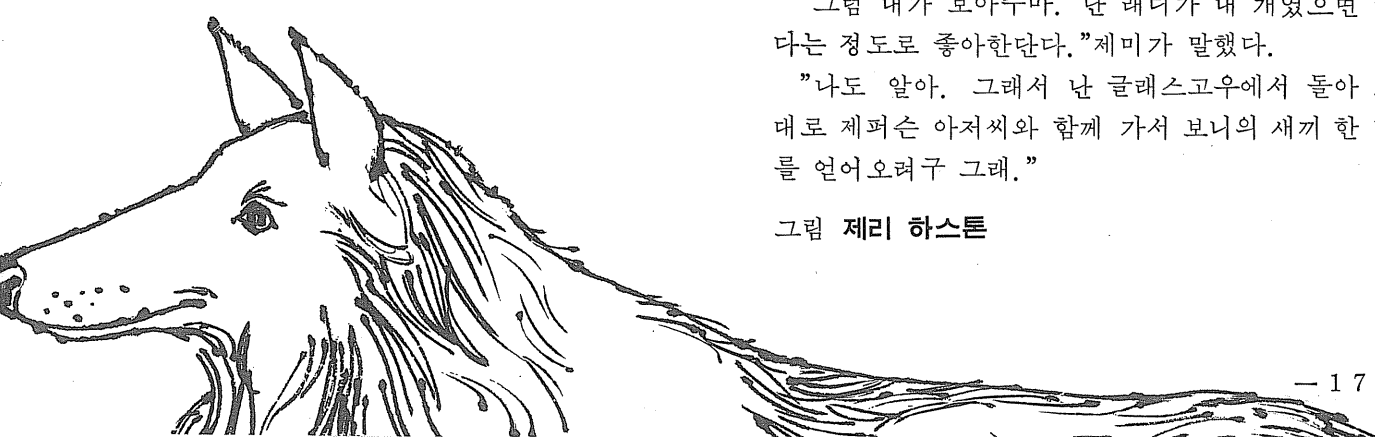
“정말이냐?” 제미는 울면서 말했다. “정말 네가 집에 없을 때 래디를 나와 같이 있게 해주는 거지?”

“그밖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니? 엄마를 빼고는 래디를 마음놓고 맡길 사람이 어디 있니?” 안구스는 물었다.

“그럼 내가 보아주마. 난 래디가 내 개였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좋아한다.” 제미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난 클래식고우에서 돌아 오는 대로 제퍼슨 아저씨와 함께 가서 보니의 새끼 한 마리를 얻어오려구 그래.”

그림 제리 하스톤



“새끼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제미가 물었다.

안구스는 설명했다. “보니가 새끼를 낳았어. 난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있어. 나는 그걸 너에게 주고 싶단다. 그러니 네가 좋은 대로 하나 고르란 말이다.”

“고맙다.” 좋아 어쩔줄을 모르며 제미는 말했다. 그는 안구스를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안구스는 제미가 경연 대회에서 실패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있을까를 알았다.

스콧트랜드 가문의 자존심이 그렇게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깊이 동정하고 이해한 나머지 안구스는 제미에게 새끼 한 마리를 주어 아픈 가슴을 달래주려 하였던 것이다. 절대로 적은 선물은 아니었다! 새끼의 값도 꽤찮게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안구스는 제미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이다.

안구스는 얼마나 훌륭한 승자인가!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이겼지만 이 승리를 뽐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는 친구의 감정을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안구스는 패자로서의 자기 보다 훨씬 훌륭한 승자였다.

“안구스야, 나도 큰 부탁 한 가지가 있는데.” 제미가 말했다.

“무언데” 안구스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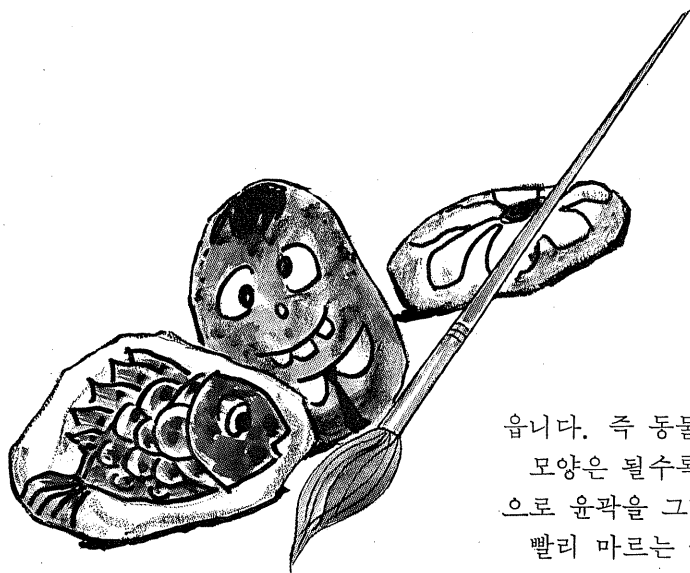
“이번에 클래스고우에 갈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통소를 가져가 줘. 안방 탁자 위에 그대로 있으려면 상당히 울적할텐데.”

“정말이니? 너의 증조 할아버지 통소를 가지고 클래스고우의 대회에 참석하란 말이지. 그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질 수가 있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성공할 수 밖에 없지.” 제미는 행복한듯이 말했다. 이번의 희망은 제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것이었다. ○

## 돌에 채색하기

페기 가이젤



● 생일 선물이나 특별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돌에 칠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리 시간을 내서 이상하거나 재미있게 생긴 돌을 찾으십시오. 뒷들이나, 시냇물, 아니면 등산할 때에 나무숲이나 들에서 찾아 보십시오.

둥근 돌은 칠하기에 편하고 한쪽이 넓적한 돌은 세워두기에 좋습니다. 걸이야 메끄럽거나 거칠거나 상관 없습니다. 때로는 혹처럼 나온 것, 갈라진 것, 또는 이상한 모양에 따라. 알맞는 대상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동물, 꽃, 또는 우스운 얼굴.

모양은 될수록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선 흐린 연필, 백묵이나 크레용으로 윤곽을 그리십시오.

빨리 마르는 수성 페인트가 좋은 효과를 냅니다.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는 니스 등을 발라두는 게 좋습니다.

적은 돌은 서류를 눌러두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돌은 문반침으로 써도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칠한 돌은 조각한 장식물로도 좋으므로 훌륭한 선물이 되고도 남습니다. ○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

## 애국심

존 에이치. 반덴버그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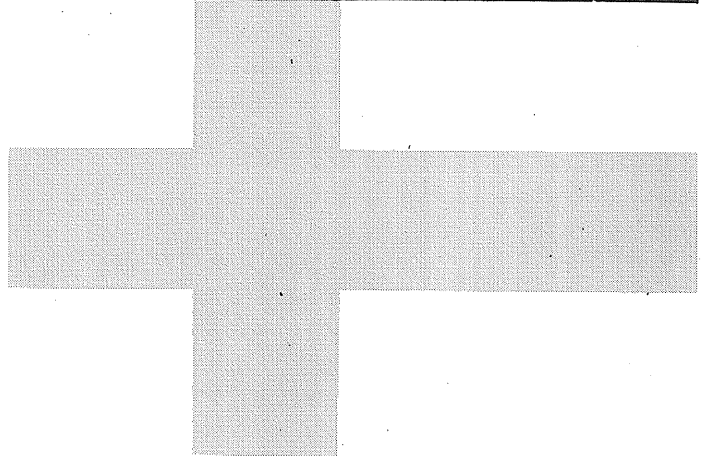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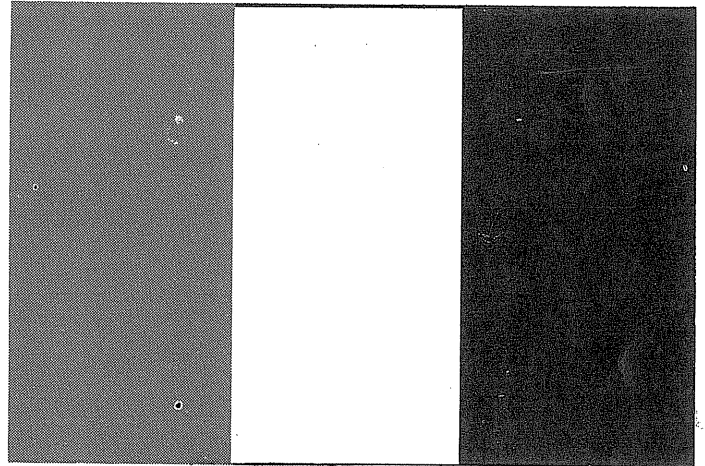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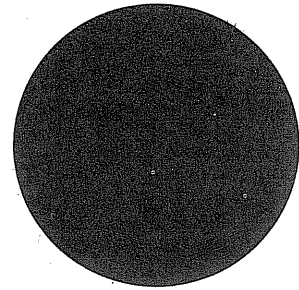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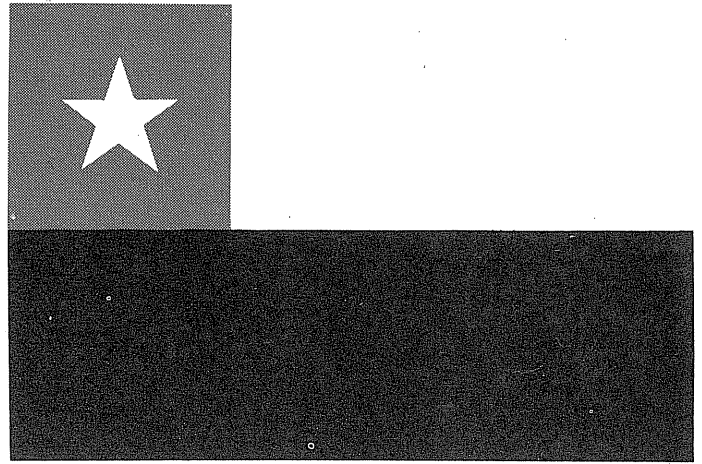
● 제이. 이. 챔벌린은 “역사의 만일들”이란 책 속에서 만일에 과거의 중대 사건이 조금 다른 결정이나 경위를 낳았을 때의 귀추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에서 가까운 미래에 관하여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서있는 역사의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심각한 “만일”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무법은 증가일로에 있다. 시민은 모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방탕과 탐닉에 빠져 있다.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어디를 가나 문제 투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가 절망으로부터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이 바로 희망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국내 및 국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 : 17)는 사실을 알며 의 가운데 굳게 뿌리박힌 원리를 갖고 있는 용기와 애국심에 불타는 젊은 세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결과로 비롯되며 유지되는 것이다.

조지 와싱턴은 하나님의 지시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인 번영으로 이끄는 행동과 관습 중에서 종교와 도덕성은 불가결한 후원자이다. 이성과 경험을 통하여 국민의 도덕성이 참다운 종교의 원리를 “배척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와싱턴의 이임사)

링컨 또한 국력은 백성 개개인의 의로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의존케 하며, 그들이 지은 죄와 범법을 결허한 슬픔으로 고백케 하며……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국가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인간은 물론 국가가 저야할 책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잠 14:34) 한 국가를 수령에서 전져내는 길은 개인의 의로움 뿐이다. 모든 국가는 의로운 확신을 소유한 젊은 세대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의로움이 주는 힘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 개인의 의로움이 전 국가를 일으킨 효소가 된 예가 많다.

19세의 농촌 소녀 잔다크는 영감에 가득찬 용기로 불란서를 패배의 그물에서 전져내 승리로 이끌지 않았던가! 니파이 선지자 몰몬은 몰락해 가는 니파이 백성의 군대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6세밖에 되지 않았으나 의로웠던 관계로 지도자로 성임받았던 것이다.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곡으로 걸어 들어가 갓의 유명한 장수와 싸워 나라를 전졌다.

니파이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모로나이는 자기 민족이 분쟁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참다 못한 그는 “그의 옷을 찢어 그 조각 위에 우리의 하나님과 종교와 자유와 처자를 위하여”라 쓰고 장대 끝에 매단 다음, “투구와 가슴판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갖추고서, 옷을 찢어 매단 장대를 들고(그가 이를 자유의 깃발이라 하였음) 땅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자유의 축복이 그의 모든 동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로나이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땅의 자유를 위해 특별한 은총을 간구한 것이다.

“이처럼 그가 심령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테솔페이 손땅 남쪽과 끝내는 남쪽과 북쪽의 모든 땅을 선택된 땅 곧 자유의 땅이라 명명하고,

“그가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져 멸시 받게 된 우리가 스스로 범법하기 전에는 결코 짓밟혀 멸망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말을 마치고 모로나이가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옷을 찢어 만든 깃발을 높이 흔들며 그 위에 적힌 것들이 보이도록 하며 큰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기를,

“보라 이 깃발을 이 땅에 세워두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주님의 힘을 입어 앞에 나아와 우리의 권리와 종교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하자 하니”(앨마서 46:12-13, 16-20)

이들은 모두 나라의 힘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의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연히 설명해 주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원리에 좇아 사는 방법 밖에는 없다.

니파이 민족 당시의 모로나이나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를 보호해 주는 원리에 따른다는 충절을 대담하게 피력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의 청소년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문제될 것이 없다.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길을 다음의 말로 요약하셨다.

“이 불안과 불신의 시대에 있어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야 할 책임과 공통적인 의무는 개인의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의 순종을 고수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야 인간은 화평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62년 12월로 903페이지.) ○



# 자신을 알라

● 회랍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에 “자신을 알라”는 것이 있다. 사실 그들 문학이나 철학이 이 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아는 비결은 가장 깊

은 자신을 검사하는 것이다. 뉴 잉글랜드의 왈테 호수가의 작은 오막살이에서 몇달을 보낸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도로우는 자신과 자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게 된 연후에 자신의 지식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미지의 바다 대서양, 태평양을 혼자서 탐구하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성인 남자 500명을 거느린 정부 함정을 타고 추위와 폭풍의 해협을 건너 수천 킬로를 항해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자신의 “미지의 바다”를 탐구하여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탐사하였다고 하자. 어떻게 되겠는가? 그곳에서 본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겠는

# 친구를 알라

● 다른 사람과의 의사 소통은 잘 하고 있는가? 진실한 자신을 알려주고 진실한 그들을 알려고 하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설계자로서

는 이상적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본래 형태를 설계하는 데서 그친다는 사실을 잊고 만다.

자신의 이미지가 자기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청소년이 아주 이상적인 사람—체육인, 유능한 학자—의 이미지를 닮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찬식에서의 이야기로는 많은 칭찬을 받지만 월요일 친구가 지껄이는 저속한 말에 큰 웃음을 터뜨리는 소년도 있다. 이야기에서 부각된 자신과 행동에서 나타난 자신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러한 표리부동에 죄책감을 느끼고는 하는가? 죄책감을 느꼈다면 정직하게 비록 자신이 잘못하기는 하였어도 이

# 하나님을 알라

캐드린 피더슨

● 여러분은 해의 영광을 원한다고 말한다. 정말로 원하는가? 정말로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해의 영광에 사는 백성은 신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 영원토록, 영원이란 긴 동안이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원하는가? 것처럼 오랜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렇게

확신할 정도로 그와 그의 생활 방법을 알고 있는가?

해의 영광의 삶을 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경전 연구로 그의 생활 방법의 일부를 배우며 그 복음(하나님)의 원리를 생활하므로써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참되게 이해하려면 이미 하나님인 사람을 아주 친숙하게 알아야 한다.

내년에 대학을 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과거에 그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사귄 친구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릴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점 한 가지 :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가? 자신을 정직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대관장단에서는 수년에 걸쳐 젊은이에게 주는 표어를 내보낸 바 있다. “자신에게 정직하라.” 모든 표어가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원리를 묘사하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미소를 보냈던가? 자신의 생각을 실생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던가? 자신과는 얼마나 정직하였던가?

우리 모두가 삶이 참으로 힘들 때 즐겨 사용하며 심리학자들이 이름붙인 이른바 “지혜 도피” 또는 “기계의주의 도피”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계주의 도피는 우리를 불완전한 세상에 정상적으로 적응시켜 주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피주의”라는 말을 “변명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려는 경향

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가? 자신은 완전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무리”를 쫓아 가기를 원하지도 않는 개인이라는 것을, 진실한 자기를 남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무용이나 소풍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가? 유행 음악 보다는 쉼시 클라식을, 유행 가수 보다는 베에토오벤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자기를 거부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조금 더 보일 의도는 없는지? 겉으로 보이는 자신이 아닌, 진실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보다 가까운 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항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고요하고 조그마한 음성”(교성 85:6)이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화평의 감정이 실제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어 답을 얻기도 한다.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답을 얻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악마의 간계, 자신의 욕망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방안 물건을 감추어 놓고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찾게 하는 놀이를 해보았을 것이다. 한 사람은 바른 길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주는 것이다. 참다운 길 안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나? 참다운 길을 알려주시는 다른 분, 즉 하나님의 안내를 알 수 있는가? 아마도 그분

이 있으며 정직한 자신과의 교통이 하나같이 어리석고 나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여 주는 사실을 합리화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초코렛, 과자나 파이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금해야 한다. 이때에 과연 자신이 체중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도만큼 자신에게 정직하였던가? 정직하게 말하여 말랐을 때 보다 음식을 더 많이먹고 그리하여 오히려 체중이 늘게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올해는 선수로 뛰지 않았다. 아니 선수로 뽑히지 조차 못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코치의 책임인가? 그는 바보며 장님이었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만 내보냈던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자신이 미치

정을 나눌 생각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는 자신을 참다운 의미에서 관찰하고 있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와 본래의 자신을 보고는 있는가? 그들이 문제 해결과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할 이야기에 더 신경을 쓸지도 모른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새로 사온 기타 줄을 만지는 것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8살 짜리 여동생의 말을 듣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수학 문제나 기타가 그렇게 중요한가?

을 잘 알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다.

기도와 정직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가장 절친한 친구와 하듯이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여 그 형태야 어떻든 답을 얻을 수 있다. 고대 및 현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다윗왕의 시편이 좋은 예이다. 리버티 감옥에서 요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 역시 좋은 예이다. 폭도의 펄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안 예언자는 고비에 빠져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외쳤다. 이에 주님은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어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노”(교성 121, 122. 참조) 이들은 주님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갖기 위하여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 자신도 그와 함께

지 못하지는 않는 것인가? 오랜 시간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였던가? 무도회 데이트를 뿌리치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당신은 혹시 여자의 화장 속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며 놀기나 하는 우둔한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치 못할까를 생각해본 적은 없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어린 남자도 인간이어서 주말마다 자기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과 어울릴 때 어색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보여주는 인상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가? 그들 또한 남이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인상이 좋아서 데이트를 신청해 올 것인가를 받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데이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소년으로서 그들이 자신에게 주는 인상이 어떻다는 것을 말해 줄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하여 조용히 앉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현재의 나인가?” 등을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죄 많은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발전의 길로 매진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러한 구절이 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진대 가고 있는 곳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잠깐 멈추어 자신의 방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알라! (정직하게.) ○

자신이 이상적인 이미지만을 위하여는 아니고 진정한 자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친구와의 약속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참다운 의사 소통은 반친구나 여동생에게 가서 “내 체중이 5키로 늘은 걸 놓고 네가 우스운 소리를 했을 때 사실 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또는 “미안하다. 그걸 내가 알았어야 했을텐데” 라고 고백하여 두 사람이 서로 존재하며 이렇게 이야기 하므로써 서로를 보다 잘 알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루어 진다.

여러번 같이 시간을 가져 서로 좋아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모험을 원하는가? 아울러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인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정직을 통하여 가치있는 우정, 구애받지 않는 우정, 평생을 두고 높이 평가할 그런 우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이다.

두 사람 이외의 대화는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모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시도해 볼 것인가? 아주 정직하게? ○

이야기할 수 있다. 비단 우리의 문제만을 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의 계획과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다.

더구나 그를 정말로 알기 위하여는 정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듣지 않으면 안된다. 데이트를 받아 들이기 전에 주님과 상의하여 그분의 충고를 들었다. 이와같이 하여 그녀는 주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사람과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어느 약을 남용했던 한 사람은 자기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다섯번이나 시도하였으나 아주 적은 일에

라도 주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때로부터 “바른”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서 복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고 듣는 방법은 약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문제, 부모, 학교 문제 등 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열쇠가 된 것은? 정직한 대화라고 하겠다. 고로 여러분이 해의 영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할 때에는 해의 영광에서의 삶은 곧 영생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정직하게? ○



참다운  
삶

엘레이나 루이스 바버



● 벌레는 마치 꼬리를 나무 틈에 고정이라도 시킨듯 마음대로 움직였다. 통나무에 펼쳐고 있는 설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턱은 구멍 가를 파고 있었다.

소년은 사팔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벌레도 여름 햇살과 산에서 나는 소나무 내음으로 정신을 잃고 있나보다고 생각하였다. 디자인이 보통 것과는 달랐다. 모두가 갈색이었으나 서로 다른 그늘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는 좀더 가까이 보려고 앞으로 다가 갔다. 그랬더니 벌레는 입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약 10센티 거리에서 이상한 색의 코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그리 좋지 않았다. 소년은 속으로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해는 밝게 빛났고 바람 또한 향기로웠다. 구름도 것처럼 크고 가까웠다. 소년은 하늘을 날아 구름에 앉는 꿈을 꾸었다. 그는 부드러운 파도를 타고 뛰며 구르는 상상을 하고는 했다. 새처럼 나르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현관을 나와 하늘을 날 때 그분들이 지을 표정을 그려보았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거다.

갈색 참새 한 마리가 머리 위 나무에 날아와 앉자 가지는 그에 맞

엘레이나 루이스 바버, 20세, 이 글로 1970년 청소년 문예 콘테스트에서 입상하여 부리잡 영매 학교 전역 면제 장학생이 됨

추어 흔들거렸다. 조그만 것이 날개를 저어 균형을 잡는 것을 보고는 웃었다.

“작은 새, 작은 새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푸로 대 자연을 날며  
무엇을 보았느냐?”

말은 아주 쉽게 떠올랐다. 시란 자기가 느끼는 기쁨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그는 이 시를 속으로 자꾸 반복하여 읽었다.

그는 일어나 팔을 펼쳤다. 젊고 생기에 넘치며 건강하며 마치 나머지 산과도 같은 자유로움을 맛보았다. 모두가 노랑고 푸르며 따스했다. 그는 나르듯이 경충편 다음 산위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위로, 위로 달려 풀밭이며 자기 집이며 계곡이며 저 밑으로 보이는 바위 꼭대기에 이르렀다. 열살 먹은 소년으로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올랐다. 마침내는 꼭대기 바위에 올라 두 팔을 벌린 채로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참지 못하여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독수리 한 마리가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고 있었다. 거만한 동작으로 먹이를 찾는 것이었다. 소년은 햇볕에 그을른 바위에 앉아 독수리를 쳐다보며 저 위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가를 상상해 보았다.

부드러운 낭떠러지에 앉아 있는 독수리가  
날고싶은 충동이나  
아니면 먹이를 찾기 위하여  
빙빙 돈다.

안개 가득한 계곡  
소나무 울창한 계곡아래로.

그는 속으로 또 웃었다. 그리고는 이 시를 새에게 주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주위와 완전히 조화된 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운 7월의 태양을 받으며 날며 산에 사는 적은 동물처럼 자신을 채어갈지도 모르는 이방인과 함께 있다는 것 밖에는 몰랐다.

시간이 지났다. 소년도 이제는 “꿈의 바위”를 떠나 산아래로 뛰어아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위를 내려가 고요를 맛보며 한참동안을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사슴이지. 아니지 제일 예쁜 숫사슴이지.” 그는 산을 내려와 전에 벌레가 있던 통나무도 지났다. 풀밭을 지나고 문을 지나 넓은 현관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흔들 침대에 누어 서늘한 그늘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왼쪽에서 자라나고 있는 장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짐박힌 손을 들어 코에 갖다 대고는 냄새를 맡아보았다—산의 태양과 미풍 그리고 나무 내음도 맡을 수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발을 흔들었다. 이에 맞추어 흔들 침대도 앞뒤로 움직였다. 집안에 손님과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흔들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셨다.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고 친구는 동정적인 미소를 지었다.

“의사는 전혀 가망이 없다구 그래요?”

“전혀 없대요. 평생을 병어리가 되는 거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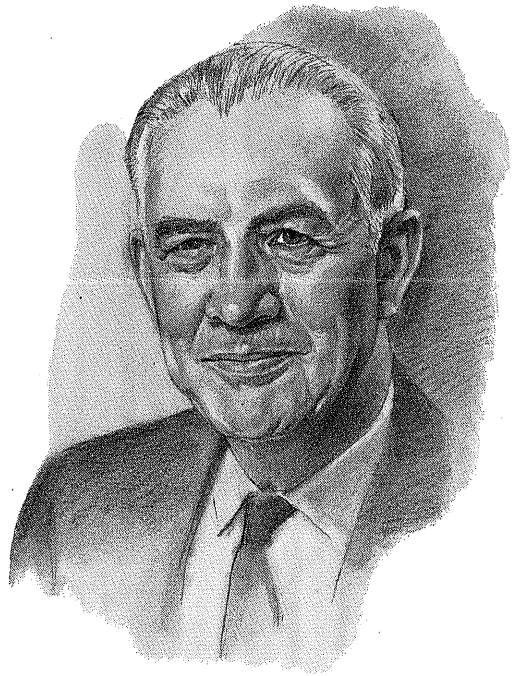
“이 일을 어쩌나!” 방문객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참다운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야 하다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

# 간증의 힘

마크 이. 피터슨

십이사도 정원회



● 개종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표방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한 교사 또는 반지도자로서의 목적에 실패를 가져오며, 교사 한 사람이 실패할 때 조직 전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임무에 관한 한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공과반이나 설교단은 “공개 토론”을 위한 곳도 아니며 논쟁의 장소는 더욱 아니다. 교사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 해석, 의견을 피력하는 “발표대”로도 사용할 수 없다.

공과반과 설교단은 복음을 배우는 중심지이다. 영혼에 감화를 주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종시키는 시설인 것이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하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13-15)

반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배움과 더 깊은 개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복음이란 그 실천과 적용에 있어서 광범위하며 또한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통달한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반을 찾는 사람은 잘 진행된 공과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의 부드러운 씨에 “주리고 목마른”(마 5:6 참조) 사람이 많다. 반 교사의 책임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통적이며 진실한 공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훌륭한 가르침이란 말은 물론 적당한 때에 시청각 교재를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공과든 경전 인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의 가르침은 확실하여야 하며 우리가 공과를 가르칠 때에 인용하는 성구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원에게 바라는 개종을 실현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 간증이 그것이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교사의 간절하고 진실한 간증”이라고 대답한다.

반 교사인 우리도 선교사이므로 반원 모두가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로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간증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르치고—간증하고—침례준다!”

이것이 선교사가 밟는 과정이다. 우리도 역시 반을 관리하면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시선 교차”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헌신적인 교사가 주는 “시선 교차”의 간증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공과를 효과적이며 확신에 가득찬 태도로 전한 후

“저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간단히 말할 때의 그 간증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 세상의 비회원을 개종시킨다. 반을 찾는 사람을 개종시키며 또 다시 개종시키는데 있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실한 간증에는 특별한 영향이 따르는 법이다. 주님께서도 이를 통하여 위대한 힘을 가진 영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애쓰고 있는 선교사와 같

이 가정의 가족에게, 주일학교의 반원에게 우리의 간증을 전할 때 그러한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다. 간증이 없이 우리의 가르침이 진실함을 증거할 수 있을까?

간증이 우리의 가슴에서 탈 때, 그리고 이를 용기있게, 두려움 없이 간증할 때 훌륭한 감명이 남게 된다. 개종이 따를 것이며 이러한 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것이다. ○

##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요한 에이. 본드라\*

마태복음 7:7

● 종교 교육은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들어본 일도 없었고 더우기 구세주에 관한 잡다한 설명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내 맘속에는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의 모든 희망과 소원을 이해하여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분이 계시다는 분명하고 아주 강한 느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분은 매우 실재적 존재였으며 어린 시절의 요구나 문제는 무엇이든지 나는 이분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던 이러한 느낌을 상실해버렸고 대학시절에는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무렵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노크하는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두분은 “당신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방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갈망해 왔으며 진리 없이는 더 이상 생을 이

어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진리는 있으며 그 진리를 찾을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 두 선교사의 단순한 말에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으며 두 선교사가 두고 간 물문경을 앓은 자리에서 완전히 읽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의식하여 온 분이 계시며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시라는 그의 자녀가 되며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침례받던 날의 온화하고 화평스럽고 행복한 마음의 느낌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 요한 에이. 본드라 1958년 11월 30일 침례받은 이래 계속 활동적인 교회 회원임. 비엔나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비엔나 부르크 극장의 조감독임. 부인 율수라 티슈하우저 사이에 세 자녀가 있음.



순간 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구속주를 참되게 알아 이 분들과는 아주 가까이 있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존 테일러에게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명백한 방법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당신에게 전하는 성령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이를 당신의 생애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이 권세의 정신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시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신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시작하였고 규칙적으로 비엔나의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며 경전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성신에 귀를 가까이 가져가곤 하였으며 성신이 내 마음에 속삭여 주는 것을 기록하곤 하였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다름 없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연습하였습니다. 하루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가 아팠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려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가면서 나는 아주 사소한 점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려고 보니 정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일에 만족하며 나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엄한 자연을 전부 통치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주님의 방법에 경탄하였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에게 부속한 만물로 그들 나름대로의 복잡 다단한 존재를 할 수 있게 허가하신 방법에 나는 놀랐습니다. 이같은 계획을 점점 실감하게 되자 나는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였을 때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 한 가지만을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애에 내려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렸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라”(요 14:6)는 음성이 내게 들려 오는 듯 하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번거롭던 문제들이 말끔히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였으며 거룩한 삶과 또한 성스러운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가슴 가득히 실감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물문경을 알았던 때로부터 나는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레이먼과 레뮤엘과 다른 태도를 가졌던 그에 대해서 명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리하이와 같이 교회의 대가족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언자에 대한 나의 자세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니파이의 행동의 기초가 “건설자”가 되려고 하고 “불평자”의 무리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내게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니파이가 그의 부친이 행한 것처럼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계시를 간증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형들은 다만 계시에 대하여 토론과 논쟁하기를 좋아하였다는 사실이 유일한 명백한 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일 10:17-19, 15:1-11 참조) 따라서 니파이의 생애는 개별적인 계시로 다져졌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고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계시는 예언자의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에 관하여 기도 드리며 어떻게 하여 그것을 내 생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간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나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변자인 예언자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굳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의 하나는 1968년 4월에 개최한 교회 총회의 방종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생후 6개월 난 딸애가 암에 걸려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방금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미 암은 딸애의 척추에까지 번져갔으며 간은 정상 크기의 두배나 되었습니다. 암의 권위자인 의사가 다녀가며 절망적인 말을 남겨주고 간 뒤인데도 나는 아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살아나 건강하게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대회 메시지를 들은 것은 바로 이 뒤의 일이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 부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를 신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감사를 느끼며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딸애는 완전히 회복하였고 지금은 전부 정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더우기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축복받기를 바라시며 또한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예언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

# 어느 군인과 함께 드린 기도

칼라 산술

● 저는 독일 함부르그에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있는 전쟁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풍금 의자에 혼자 앉아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튼튼하던 이 건물의 지붕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 삼 분지 일이나 날라가 버려 집회실 위에는 큰 구멍이 나 있고 한쪽에는 부서진 조각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의 회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는 유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나마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944년 말이었습니니다. 독일은 벌써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타격을 받았지만 몇몇 연대가 함께 모여 침입하여 오는 쏘련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동안 아름다운 황금빛 석양이 풍금을 내려 비치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기차 정거장 길거리에서 복잡대고 떠드는 잡다한 불협화음이 천장을 통하여 실내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평화를 참으로 여러번 느껴왔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러한 생각으로 승화되어 있을 때 바깥 문에서 노크 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한번 더 들리더니 덜컥덜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노크 소리의 절박감을 알 수 있었고 서둘러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 앞에는 낯선 전투복 차림의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피로하기는 하지만 총명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자 그 낯선 사람은 “실례합니다. 저는 풍금소리를 듣고 왔습니다……저는 스와츠 중위 아니 비엔나에서 온 한스 스와츠 형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가냘픈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말일성도 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기차 정거장에서 기차를 바꾸어 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대합실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귀에 익은 아름다운 찬송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오다보니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차 정거장은 여기서 길을 세번 건너가야 했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데!

“당신은 이곳을 발견한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라고 그는 계속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시간 후에 떠납니다. 저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의 눈을 쳐다보며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실 수 있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저는 멍해 있었습니다. 그분을 예배당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풍금 앞에 앉아 익숙한 곡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단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자였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그는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곧 자기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듯 저의 손은 건반을 힘주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맑고 아름다운 테너 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를 풍금에 맞추어 불렀습니다. 그는 풍금 의자로 와서 내 옆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경계하던 저의 마음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찬송가를 끝까지 다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한적이 있습니까?”라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지 않아 전쟁터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전쟁을 싫어하고 굉장히 피로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든걸 거예요.”라고 대답하면서 저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참으로 마음 아파 했습니다.

그는 얼마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는 함께 기도하자는 몸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복음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를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늘 받았던 커다란 위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지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무거워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와 의의 교사가 되어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즐거이 죽음을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 세상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흘러 내리는 눈물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처럼 쉽게 저의 본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을 하고 난후 저는 그 군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 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젊은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있던지 그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구세주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태 19:14)라고 가르쳐 주신 참 뜻을 저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웃이 되고 한 인간 가족이 되기 위하여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짐이 인간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는 교량을 건설하는데 도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칼라 산술 자매는 퍼시픽 팔리세이드(캘리포니아) 와드에 속해 있으며 독일 함부르그에서 자라나 세계 제 이차대전을 그곳에서 겪었다. 그의 아들은 지금 서독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1971년

● 선교부장단, 슬로버 자매, 그리고 모든 선교사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쁨, 행복, 화평, 번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년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배전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승영과 영생을 향하여 전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은 지난 해에 우리가 성취한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를 생각하여 볼 때에 발전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약 800명의 회원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년초에 2개였던 지방부가 4개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1970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를 물몬경의 해로 삼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년에 걸쳐 소화한 이상의 물몬경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회원 모두가 물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책을 통하여 개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쳐다보고 수행한 일을 보고 감회에만 젖어있을 것이 아니고 잘못을 시정하여 1971년을 시작하는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결심을 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보아서도 기대되는 해입니다. 계속하여 반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물몬경을 계속하여 읽고 연구하며 이와 더불어 두가지 목표에 착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알아 친숙하게 되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남의 감정을 상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상태로 이를 수행하려면 가정 복음 교육을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각 지부, 지방부에서는 가정 복음 교사를 임명하고 훈련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부는 틀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이 호남  
윌리엄 오. 위티커

림없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단합된 지부입니다.

1971년의 두번째 목표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슨 반에서든지 보다 잘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지부 및 와드에서 시행할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1971년에 우리 말로 번역되어 각 지부에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상향회, 신권회, 상호부조회 및 기타 모든 모임에 회원을 많이 참석시키려면 교사는 재미있고도 유익한 지식을 준비하여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석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좀더 가깝게 되겠다는 결의를 굳게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을 찾겠다는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는 바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쓰신 편지에 나타난 확신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여러분의 선교부장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성과 그의 교회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이 말일에 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노력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

